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⑬ 동산법문(東山法門)의 창립자 도신(道信) 선사



▶ 한줄 요약
사실상 중국 선종의 실제적인 초조는 바로 도신이라고 할 정도로 도신의 선종에 대한 작용은 절대적이다.

도신 선사, 중국 선종 실질적 '초조'

수대(隋代)는 40년을 못 채운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불교학에서는 천태 지의(天台智顗)와 길장(吉藏) 등의 고승들이 출현하였고, 또한 이 시기에 중국 선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인물이 출현하였으니, 그가 바로 도신(道信, 580~651) 선사이다.

도신의 생애는 후대에 선종의 사조(四祖)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헌에서 기재되고 있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역대법보기(曆代法寶記)〉,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 〈전법보기(傳法寶紀)〉, 〈조당집(祖堂集)〉 등 선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전적에 그의 전기가 실려 있다. 그러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료는 바로 도선(道宣)의 〈속고승전(續高僧傳)〉이다. 특히 도선은 도신이 입적한 영휘(永徽) 2년(651)에 도신의 전기를 추보(追補)하였기 때문에 후대에 발생한 다른 전설이 가미되지 않은 자료라고 하겠다.

〈속고승전〉 권20에 실린 전기에 따르면, 도신은 사마(司馬)씨이며, 출신지는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7세에 계행(戒行)이 불순한 스승을 5년간 모시다가 13세에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2인의 승려를 따라 서주(舒州) 환공산에서 10년 동안 선업(禪業)을 닦았다고 한다. 그 후에 양제(煬帝)가 즉위하면서 또한 사도승의 출가를 허용하여 정식으로 계를 받고 길주(吉州)의 관립사찰인 길주사(吉州寺)에 배속되었다고 한다. 양제가 사도승의 출가를 허용한 것은 대업(大業) 3년(657) 정월(正月)의 일이며, 그에 따라 도신은 27세에 정식으로 출가했음을 알 수 있다.

〈속고승전〉에서는 당시 길주성이 70여 일 동안 도적에게 포위되었고 우물이 말랐지만, 도신이 길주사에 도착하자 물이 다시 나왔으며, 길주자사가 도신에게 도적이 언제 물러갈지를 묻자 도신은 성내의 사람들에게 '반야'를 염송하라고 하자 성의 네 귀퉁이에서 대력사(大力士)의 용맹한 모습이 현현하였고, 그에 도적들이 도망하였다고 한다. 그 후에 도신은 형악(衡嶽)에 머물려고 향하다가 강주(江州, 九江)에서 도속(道俗)들의 청으로 여산(廬山) 대림사(大林寺)에 10년을 주석하였다. 이 대림사는 현재 댐의 건설로 수몰되어 아쉽게도 유적조차도 볼 수 없지만, '연사(蓮社)'를 일으킨 혜원(慧遠)의 동림사(東林寺)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런데 이 대림사는 본래 지개(智鍇, 533~610)가 창립한 사찰이다. 지개의 전기는 〈속고승전〉 권17에 실려 있는데, 개황(開皇) 15년(595)에 천태 지의를 참알하여 천태학을 수습하여 지의대사가 중히 여겼다고 하며, 만년에 〈열반경〉, 〈법화경〉, 〈십송율(十誦律)〉을 강의하였으며, 수의 고조 문제가 제도(帝都)로 초청했지만 병을 핑계로 응하지 않았고, 대림사에 주석하면서 20년간 산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대림사에 머물던 중에 황매현(黃梅縣) 도속들이 찾아와 황매현에 머물기를 청하자 도신은 황매의 쌍봉산(雙峰山)에 입산하였다. 이는 당(唐) 무덕(武德) 7년(624), 도신의 44세의 일이다. 따라서 〈속고승전〉에서는 10년이라고 하지만, 여러 정황상 27세에서 43세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약 16년에 이르도록 도신 선사가 대림사에 머물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로부터 이 시기에 도신이 천태학을 수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는 천태학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또한 전체적인 도신의 선사상은 천태학으로부터 도출한 흔적이 여실하게 보인다.



도신 선사가 조성하고 법을 펼친 호북성 황매현 쌍봉산 사조사. 사진제공=정운 스님

27세 출가해 길주사에 배속돼
황매 쌍봉산서 동산법문 개창
천태학에서 '오문선요' 제창해

도신은 황매의 쌍봉산에서 동산법문(東山法門)을 개창하였으며, 이곳에서 30년간 주석하다가 72세로 영휘(永徽) 3년 윤 9월 4일에 입적하였다.

〈속고승전〉에서는 도신이 입적 당시에 쌍봉산 선문에는 500여 명이 주석하였다고 하면서 언급하는 제자는 다만 홍인(弘忍) 한 사람뿐이다. 그러나 관련된 자료에서는 도신의 제자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인물이 존재하며, 나아가 황매의 자사 최의현(崔義玄) 등과 같은 고위관리들이 귀의하였다고 한다. 또한 〈속고승전〉에는 도신의 제자로 추정되는 사층사(四層寺) 법현(法顯)과 형악사문(衡嶽沙門) 선복(善伏)의 전기가 실려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천태학의 대가들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이 도신으로부터 법을 수학한 것은 천태학을 사상적으로 극복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법현은 30년간 천태학을 수학하다가 도신을 찾아 본심(本心)을 밝혔다고 한다.

도신의 선사상과 관련된 유일한 자료는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이다. 〈능가사자기〉의 돈신전은 거의 반에 이를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신의 선사상을 밝히기 위하여 찬술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타날 정도이다. 그에 따라 〈능가사자기〉의 도신전을 중심으로 그 선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능가사자기〉의 도신전은 "당(唐) 기주(蘄州) 쌍봉산(雙峰山) 도신선사는 찬선사(燦禪師)의 후계자이다. 그 도신선사는 다시 선문(禪門)을 일으켜 천하에 전파하였다. 도신선사에게는 〈보살계법(菩薩戒法)〉 1권과 〈입도안심요방편법문(入道安心要方便法門)〉이라는 저술이 있다"라고 시작된다. 여기에서 도신이 삼조(三祖) 승찬(僧璨)의 제자라는 것은 후대에 성립한 조통부법설에 입각한 것이지만, 〈보살계법〉과 〈입도안심요방편법문〉의 저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능가사자기〉의 도신전에 보이는 사상에 대한 논술은 바로 〈입도안심요방편법문〉을 요약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더욱이 도신은 제자들에게 "입도방편(入道方便)"으로 교화하였다는 기록들이 보이는데, 바로 이 저술을 통하여 교계(敎誡)하였다고 하겠다.

이에 이어서 도신전에서는 "나의 법요(法要)는 〈능가경〉의 제불심제일(諸佛心第一)에 의거한다. 또한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一行三昧)에 의거하고 있다"라고 하여 도신 선사의 법요를 밝히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불심(佛心)'을 중시한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불성론(佛性論)의 대전제를 선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는 사상적으로 달마-혜가계와 도신-홍인계를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출현한 것으로, 전체적인 도신의 선사상에 〈능가경〉의 사상적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도신전에서 '심'을 논할 때 〈무량수경〉의 "모든 부처님들의 법신은 일체중생의 심상(心想)에 들어 있으며,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是心是佛), 이 마음이 바로 부처를 만든다(是心作佛)"고 한다. 그러므로 부처는 바로 이 마음인 것을, 마음을 벗어나서는 다른 부처는 없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라고 밝히는데, 이는 오히려 천태학으로부터 연원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지자 대사에게 〈불설관무량수불경소(佛說觀無量壽佛經疏)〉라는 저술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는 바로 반야공관을 바탕으로 선법을 전개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불성'과 '반야'라고 하는 두 축을 법요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북조와 수대를 거치며 이미 거의 모든 종파에서 정형화된 것이라 하겠다.

도신은 자신의 법요로 설정한 '일행삼매'에 득입(得入)을 위하여 염불(念佛)과 좌선(坐禪)을 '방편'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최종적인 '방편'을 다음과 같은 '오문선요(五門禪要)'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마음의 체를 아는 것이다.(知心體) 마음의 체는 그 성(性)이 청정하여 부처와 동일하다.

둘째, 마음의 용을 아는 것이다.(知心用) 마음이 작용하여 법보(法寶)를 낳고, 마음은 끊임없이 작용하여 언제나 정적하며, 모든 혼란에서도 그대로이다.

셋째, 언제나 깨달아 머물지 않는 것이다.(常覺不停) 깨닫는 마음은 항상 눈앞에 있고, 깨닫는 대상은 모습이 없다.

넷째, 항상 몸이 공적함을 관하는 것이다.(常觀身空寂) 자신의 안팎이 하나로 관통하면, 몸은 법계(法界)의 속으로 들어가 일찍이 걸림이 없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다섯째, 하나를 지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守一不移) 움직임과 고요함이 항상 한 곳에 머무르므로, 수행자로 하여금 불성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하고, 빠르게 정문(定門)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

이 '오문선요'는 마음의 체용(體用)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상각부정(常覺不停)'과 상관신공적(常觀身空寂)의 반야공관(般若空觀)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일불이(守一不移)'에 이르는 선법이다. 이는 비록 상당히 간략하지만, 그 사상적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특히 '수일불이'에 따라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스스로 정에 들어감(泯然心自定)"이라고 하고 있다. 이 "민연심자정"은 바로 입도안심(入道安心)의 경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도신선이 목적하는 정수라고 할 수 있어 수일불이는 바로 도신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달마가 선수학(禪數學)의 전통을 계승한 정학(定學)으로부터 '이입사행(二入四行)'의 간결한 선사상을 도출했다고 한다면, 도신은 복잡한 천태학으로부터 '오문선요'를 제창하였다고 하겠다. 비록 달마-혜가계와 도신-홍인계는 결코 사법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 선사상 역시 같은 맥으로 볼 수 없지만, '불성'과 '반야'라는 틀로 간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중국적 사유의 특징인 〈주역(周易)〉에 보이는 "앎이 간결하면 실행이 용이함(知簡行易)"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의 선사상은 모두 이러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도신의 법을 이은 홍인에 이르러서는 '동산법문'이 더욱 흥성하게 되는데, "천하 도속의 십중팔구가 그 법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보일 정도이다. 사실상 중국 선종의 실제적인 초조는 바로 도신이라고 할 정도로 도신의 선종에 대한 작용은 절대적이고, 실제로 도신의 선사상에서 '방편'의 측면을 걷어낸다면, 후대에 제창된 조사선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신의 중대한 사상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 육각초 | 연꽃칠성촛대

침향 |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 연꽃 크리스탈 촛대 |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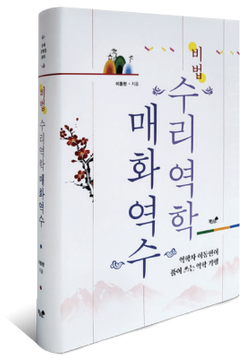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다산민속사주 나는 역학이다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학비법입니다.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숫자 운명을 품다)
사주공부 어렵게 하지마라,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
10만 명 실관, 17년 역학 강의,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 이동현의 역학통변강의



1부터 9까지 아홉 가지 숫자를 사용하여 일진, 월운, 세운, 대운을 봅니다. 대단히 쉽고 간단하면서도 족집게처럼 명확하게 사주운세를 감명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지음 | 550p | 180×253×41㎜
정가 ~~60,000원~~
판매가 54,000원(10% 할인)

◈ 책구입 & 동영상강의 신청 ◈
02)877-8771, 010-9687-0080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